

산악의 계단식 논

시마바라반도에 농경지는 많지만 벼농사는 매우 드뭅니다. 산비탈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논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아름다운 산악의 계단식 논은 계곡의 일부가 산사태로 메워졌기 때문에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에도 시대(1603년-1867년)에 부유함의 지표는 한 성인이 한 해에 먹는 쌀의 양으로 나타냈는데, 그 단위로는 ‘석(石)’을 사용했습니다. 쌀은 사실상 통화로서 기능했으며, 세금도 ‘석’으로 부과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쌀이 없으면 경제활동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벼농사를 성공시키기 위한 양대 조건은 많은 양의 물과 평탄한 땅인데, 시마바라는 큰 강이 없고 산이 많은 반도로 평지가 없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가난한 번이었습니다.

옛날 이 골짜기는 산사태가 일어난 곳으로 큰 바위가 산에서 대량으로 무너져 내렸는데, 그 바위는 땅을 평평하게 만들었고 계단식 논의 돌담을 만드는 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도 서쪽의 많은 강수량과 불침투성 바위층이 어우러져 계단식 논에 적합한 조건이 갖추어졌습니다.

계단식 논은 이러한 지질학적 혜택을 수백 년에 걸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1910년대에 이 지역에 현내 최초의 영업 발전소인 수력발전소가 설치되었습니다.